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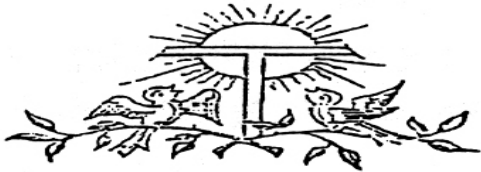
#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2호 2006년 2월 19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회칙 제11조 - 성부를 신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을 관심있게 또 좋게 보셨지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생활을 택하셨다. 이와 같이 회원은 물질적 욕구를 줄임으로써 현재의 재물로부터 벗어나고, 사물에 있어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복음에 따라 자신은 하느님 자녀들을 위해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은 '행복 선언'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순례자나 나그네"와 같이, 소유욕과 지배욕 및 그러한 모든 경향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형제회 삶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이 되려면 형제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프란치스칸 성소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매료되어 개인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형제애를 생명으로 하는 형제회는 프란치스칸 생활양식의 본질적 요소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형제적 친교를 복음의 본질로 계시해 주셨다(회헌28,1). 따라서 형제회를 떠나서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의 생활은 의미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세상 모든 이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받아들였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회원들도 비록 각각 자기들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형제회를 형성하여 프란치스칸 가족의 형제애를 통한 변화와 성숙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이 형제회는 직업과 나이와 성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회 안에서 다양한 협력과 일치를 이루어가기를 희망한다.

### 재의 수요일은? (2006년 3월 1일)

이 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 당하시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 날 모든 교우들은 재를 머리에 얹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청하며 엄위하신 하느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의 무상함을 고백하는 예절, 즉 '재를 머리에 얹는 예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3,19 참조)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 하얀 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재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주술적 또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경우를 보면, 재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죽음에 처해질 운명, 슬픔에 처한 상태 그리고 회개를 의미하였습니다. 즉 재는 원래 개인적인 회개 또는 통회의 표징으로 사용되다가 발전하여 공적인 회개를 위한 공식 전례의 재료가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재는 대개 죽음의 상태, 무가치, 슬픔 그리고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상숭배자를 '재를 좋아하는 자'(이사 44,20)라 말하고 예제키엘

예언자는 교만한 자를 '땅위의 재'(에제28,18)로 여겼습니다. 반면 겸손하고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죄인들은 자기가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머리에 재를 얹고(에제27,30), '재 위에 앉아서'(욥42,6)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는 창세기 3,19에서 말하듯, 사람이 자신의 허무함과 무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을 의미하며(마르1,15), 재를 머리에 얹음은 이 회개의 약속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발전했을까?

재의 수요일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재위:590-604)에 의해 사순절의 첫날로 제정되었고, 재를 머리에 얹는 신심 행사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1901년 Benevento의 주교회의의 결정 이후부터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재위:1563-1582)는 이날 전 세계의 교회가 단식과 금욕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수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에 참여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 순수한 침묵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싶어 애를 쓰고, 그러다 예수님이나 마리아님을 만나기도 한다. 그럴 때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느낀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기쁨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지에 집중하면, 그것들은 하느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다. 하느님은 이미지 너머에 계신다. 하느님을 상상한 이미지가 내 마음을 그분께 들어올리는 데 중요하지만, 내 이미지들을 언젠가는 무시해야만 할 때가 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단지 나 자신과 나의 관념만을 대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순수한 침묵을 지킬 때 그분에 관한 모든 생각이 멈춘다. 하느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한 나는 그분에게서 분리된 것이고, 나와 하느님 사이에는 다리를 놓을 수도 없을 정도의 거리가 생기게 된다. 그 이미지들에 집중하는 한, 나는 내면적으로 나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며, 나의 멋진 느낌들은 이런 이미지들이 유발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그대가 기도하는 동안  
온갖 잡념에 빠져들지 않고  
고요 속에 머물도록 깨어 있으라.  
그러면 그대와 같이 보잘 것 없고  
무지한 자를 동정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대에게 기도의 복된 선물을 주실 것이다.

것을 뒤로하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방문 하셔서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가장 뛰어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한다. 에바그리우스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다. 기도야말로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며, 사람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에바그리우스를 매혹시켰던 그 힘을 느낀다. 기도 중에 그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들어올리셨던 그 존엄성을 체험한 것이다.

인간이란 보잘것없고 초라하며, 늘 실패를 거듭하고 삶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며, 상처를 입히고 또 입으며, 병들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자신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들어올려 그분과 결합되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높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항상 다시 새롭게 기도에 전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 마음을 텅 비우고

힘은 평화로운 마음에서 생긴다.  
평화로 가득찬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텅 비워라. 당신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미움, 불안, 후회, 미련, 죄의식 등을 깨끗이 비워내는 일을 어김없이 실행하라.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비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잠시 동안이나마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중에서 -

마음을 비우는 좋은 방법은 '깊은 호흡'입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앉아 배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다음, 천천히 길게 끝까지 코로 숨을 내쉽니다. 다시, 배로 숨을 더 깊이 들이쉽니다. 이렇게 몇 차례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 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걸어 가면서, 화장실도 좋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도 몇 차례 호흡해 보세요.

- 고도원의 아침편지 -

## 사랑의 부작용

사람이 사는 맛 중에  
 사랑하는 맛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리적인 만족감 혹은 행복감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그 어머니가 웬지 어깨를  
 으쓱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되면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확대시키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당신들 스스로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본성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면  
 마치 자신의 일이 잘된 것처럼 생각되고  
 마음도 그 이상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역으로 상대방이 잘못되었을 때  
 즉 상대방이 내 기대치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에도  
 같은 감정이 일어나서 실망감 혹은  
 좌절감마저 느끼고  
 심지어는 자식이 잘못되었는데  
 그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오는 분들 중에  
 자신의 문제가 아닌 배우자나  
 자식들의 문제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상대방의 문제에 대한 걱정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자식에 대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혹은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오는데 많은 경우  
 상대방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빠져 비현실적인 불안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그것에 치이는 악순환 속에서 힘겨워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을 편하게  
 두지 않는 즉 들들뽕아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삶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의 걱정을 남이 해준다고 해도  
 실상 그 인생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본인이란 것입니다

남의 인생의 짐까지 대신 바리바리 이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이란 것을 아셔야 할 것이며  
 그런 식의 도움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도반신부님 강론집 -같이 가는 거-(펼)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3월 25일 토요일 사순 피정이 한데레사 자매택에서 저녁 5-9까지 있습니다.
- + 김운옥 자매님이 사정상 구역서기직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강옥희 말가리다 자매님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 + 북한선교, 성소후원회비, 나자로 성심원, 소련에 후원회비 각 300불(총1200불)을 보냈습니다.

###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원들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 + 김병두 베르나르디노 신부님께서 재속프란치스코 서울지구 영적보조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신부님과 서울지구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을 위해 ...
- + 3월25일 지구형제회 총회때 있을 평의회원 선출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지길 ...
- +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 ...

### 2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45 PM - 성무일도 / 월례회

### 말이 적은 사람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나도 이제 가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수가 적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고 싶어진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으로 말이 여물도록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쏟아내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불쑥 말해 버리면  
안에서 여무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은 비어 있다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여과기에서  
걸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불교 경전은 말하고 있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전부 말해 버리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는다

- 법정스님의 글 중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